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APRIL 2023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32



### 봄의 교향악

두꺼운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되어 졸졸졸 흐르기 시작하면 개구리와 종달새도, 땅속 개미와 지렁이도, 냇가의 수양버들에게도 피와 물이 다시 흐르고,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기지개를 펴면서 봄의 교향악 제1악장은 시작된다. 수백만년 동안 반복되어 왔을 4월에 시작되는 봄의 교향곡은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다.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생명의 오묘함과 신비로움이 더해지고 때로는 장엄하기까지 하다.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 개구리의 깨어남, 봄내음과 아지랑이, 개나리와 목련꽃, 종달새와 피꼬리의 지저귀 등은 세상 만물이 각자의 모습으로 깨어나 조화롭게 합창하는 "Hallelujah"이고 장엄한 "봄의 교향악"이다. 들판에서 강가로, 높은 산에서 바다로 퍼져나가는 감동적인 생명의 대합창을 이은상님은 "봄의 교향악"으로 표현하지 않았던가?

봄 처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봄날은 설레임과 나른함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새끼를 낳는 번식의 계절이고 축제의 계절이며, 생명에 뜨거운 불길을 불어넣는 정열과 유혹의 계절이다. 아직은 쌀쌀하지만 바람결에 섞여 오는 봄내음을 맡으면 골퍼의 몸은 본능적으로 부르르 떨리면서 맥박은 빨라진다.

창고에서 골프채를 꺼내 한 번씩 휘둘러보고는 마치 최고의 고객을 꿈꾸는 검객같이 올해는 정말 공을 잘 쳐보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또 세워본다. 해가 거듭될수록 비거리는 점점 짧아지고, 컨디션은 잡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골프란게 연말로 갈수록 조금씩 좋아져 최상의 상태가 되다가 미끄러져서, 봄이 되면 다시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패턴인데,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Sisyphus)의 바위를 연상시킨다. 정상을 향해 바위를 끌어올리다 연말이 지나면서 바닥으로 미끄러지고, 봄부터 또 다시 바위를 끌어올리는 것을 반복하는 골퍼들은 현대사회의 시지프스(Sisyphus)인지도 모르겠다.

4월부터 시작되는 봄철은 골프를 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지만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 크림을 준비하고, 준비운동과 함께 우천, 알레르기 등에도 유념한다. 봄철 야외활동에서는 일교차가 심하므로 가벼운 자켓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오순문 (사대68)

[사진: 3월 20일로 94세 생신을 맞으신 이준행 명예회장님을 축하하며 이회장님 댁에서]

# 행/사/안/내

## 2023년 신년교례회

회원 전체가 모이는 새해 첫 행사로 신년교례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Fly to the moon"을 부른 신주원, 한국 전통악기의 대가 Gamin, 이탈리아 벨칸토 창법의 테너 황진호를 초청하여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날짜:** 2023년 4월 1일 (토)
- 장소:** Korea Community Center, 100 Grove St, Tenafly, NJ
- 시간:** 오후 4시 - 9시
- 회비:** \$120
- 등록:** 김정필 (201)965-7759 jaypkim@keiusa.com

## 4월 봄철 하이킹

큰 눈과 추위없이 한겨울을 보내고 나니 새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위에 높지 않은 아름다운 산이 많아 하이킹 하기에 좋은 여건이 뉴욕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큰 혜택이지요, 산천초목이 활기를 되찾고 푸르름을 머금은 계절에, Harriman State Park 산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의 건강을 되새겨 보지 않겠습니까? 치매 보다 더 잔인하고 처참한 질병이 혈관질환(뇌졸중, 심장병등)이라며 의학전문기자 홍혜걸 박사는 운동을 통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성인병과 혈관질환을 예방하자며, 장시간(30분 이상) 저강도 운동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는데, 무리하지 않은 등산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 일시:** 4월 13일(목) 9:00am
- 모이는 장소:** PIP exit 4-5 사이 Commuter Parking Lot  
Trailhead: Anthony Wayne Recreation Area Parking Lot
- 준비물:** 간단한 점심 도시락과 마실 물, Hiking Pole  
따끈한 오텩국물은 준비합니다.
- 참가 신청:**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 2023년 첫 골프대회

긴 겨울동안 많이 기다리셨던 첫번째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 날짜:** 2023년 4월 20일 (목)
- 장소:** Sunset Valley Golf Club, NJ
- 시간:** 낮 12시 Tee off (shutgun)
- 회비:** \$120
- 등록:** 김정필 (201)965-7759 jaypkim@keiusa.com

## Kaaterskill Fall 방문

5월에는 15인승 Van을 빌려서 NY의 명소 카아터스킬 폭포를 방문합니다. 가벼운 산책과 사진찍기에 아주 좋은 명소입니다.

- 날짜:** 2023년 5월 25일 (목)
- 시간:** 오전 9시 PIP exit 4-5사이 파킹장
- 회비:** \$20
- 등록:** 김정필 (201)965-7759 jaypkim@keiusa.com

# 13th Year Milestone

## ■ 홍종만 골든클럽 회장

2011년 처음 신년교례회를 시작한 게 엇그제 같은데 금년이 13번째가 되었고, Chat GPT에게 좋은 표현을 부탁하니 13th Year Milestone을 추천하네요. 한겨울 동면기를 지내면서 소원해진 회원 상호간의 관계가 신년교례회를 기점으로 화목하고 활동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다가오는 골프대회, 하이킹, 야유회 등 즐거운 여름시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간의 삶 전반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과 유사하지만, 노후 생활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 \* **건강한 삶:** 건강은 언제나 중요하지요. 노후 생활에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일정한 운동, 규칙적인 음식 섭취, 충분한 휴식 등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 **사회적 관계:** 가족, 친구, 이웃 등 사회적 관계는 노후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지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적 유대를 이어가면서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 \* **금융 안정성:** 노후 생활에서도 경제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하지요. 필요한 돈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 \* **자기 계발:**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노후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지요. 취미생활, 독서, 대화, 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삶에 더욱 깊이를 더할 수 있겠습니다.
- \* **삶의 목적:** 노후 생활에서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추구하며, 사회나 가족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은 노후 생활에서도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행복한 노후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좋고. 이들과 빈번한 소통을 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골든클럽의 필요성과 역할을 생각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골든클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준행 명예회장 생신연- 정해민 최수용 이준행



이준행 명예회장 생신연- 생일케이크와 축하 떡



이준행 명예회장 생신연- 이준행, 이희장 아드님, 손경택, 신응남



이준행 명예회장 생신연- 성기로 이대영 한태진



이준행 명예회장 생신연- 홍종만 이준행 임호순 여주영 손경택



이준행 명예회장 생신연- 임호순 정해민



Underwood Orchestra Concert 연주후 함께한 회원들



Underwood Orchestra Concert 관람을 마치고 함께한 회원들

# 문화생활로 윤택한 노후 만드자

■ 여주영 (명예회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으면서 사회와 인간관계에서 거의 폐쇄되다시피 지내온 나날들. 다행히 3년만에 완전히 해방돼 이제는 모두들 가고 싶은 곳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즐거움을 다시 찾는 여유를 갖게 됐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를 옥죄었던 백신도 저리 가고 마스크도 벗어 던진 이 자유의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 이제는 자신의 윤택한 노후를 위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찾아 하고, 갈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문화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다.

나이 들었다고, 힘들다고 집에만 있게 되면 건강에 도움이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움직여야 그래야 오래 산다”는 말이 있듯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집에만 주로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생활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생활

이다.

하버드 대학도 지난 80년간 연구한 결과 좋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며 사는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결론지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금융위기, 경기침체 등... 불안감과 우울감이 우리를 엄습하기에 충분하다. 이럴수록 가라앉을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두운 분위기를 이겨내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스스로 나의 건강과 행복을 찾는 일이다. 우선 봄과 가을 연중 두 차례 다음과 같은 곳으로 함께 나가 즐기는 것은 어떨까 싶다.

골든클럽에서는 NY 일원의 명소들을 함께 방문하며 즐기는 계획을 가지고 5월에 첫번째 방문지로 Kaaterskill Fall을 선정하고 준비중이며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 1. Metropolitan Museum



메트로폴리탄 미술 박물관은 맨하탄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과 함께 손꼽히는 세계 3대박물관으로 지역별로, 역사적인 것부터 유명화가의 작품들까지 관람할 수 있다. 세계 유명 작가들의 회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이 300만점 소장되어 있는 이곳의 볼거리는 뭐니뭐니 해도 세계적인 화가 고흐, 고갱, 모네, 세잔, 피카소 등의 작품을 모두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점이다.

1890년에 개관된 이 미술관의 특색은 소장 유물의 폭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5000년 이상의 전 시대와 지역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나 정부기관이 아닌 순수하게 민간인 주도하에 설립된 점도 이 미술관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다.

이 미술관은 일반에게 공개된 후 현재 약 200만 스퀘어 피트가 넘는 면적으로 확장되었다. 뉴욕의 자랑이자 자부심인 이곳은 전 세계관객들이 꼭 들리는 뉴욕의 명소이다.

## 2. Governors Island



거버너스 섬은 어퍼 뉴욕 만에 위치한 섬이다. 1794년부터 1966년까지 군사기지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랜드마크로 지정되었다. 많은 뉴욕시민들이 자주 놀러 오는 곳으로 맨하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섬은 1996년 미군과 해안 경비대가 철수하면서 2003년에 뉴욕시가 되었고 이곳에 대한 활용에 관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2014년 5월에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주로 5월부터 10월정도 까지만 오픈하는 섬으로, 관광객들이 뉴욕에 와서 다녀본 곳들 중에 많이들 마음에 들어 할 정도로 가볼 만한 곳이다.

야외공간에서는 햇살과 바람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더욱 좋다.

### 3. New York City High Line-Chelsea Market



Little Island-New York Winery  
뉴욕 여행에서 사람들이 빼놓지 않는 곳 중 하나가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첼시 마켓과 폐고가 철도를 활용해서 만든 하이 라인파크.

이 곳은 하루에 즐길 수 있는 일일 코스이다. 빌딩 사이로 하일랜드를 걸어서 첼시마켓(신선한 해산물을 비롯한 유명 상점, 각종 마켓이 입점)에 이어 리틀 아일랜드를 구경하고 루프탑을 다녀와서 뉴욕 와이너리에서 디너를 먹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마감하면 아주 멋지고 우아한 오후가 될 것이다. 예약이 필요하며 식사는 일인당 약 50달러.



첼시마켓에서 나오면 연결되어 있는 하이라인은 폐장한 고속 화물 철도 고가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 뉴요커를 위한 또 하나의 쉼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남쪽으로 뻗어 있는 하이라인은 뉴요커들의 산책공간으로도 애용되고 있다.



#### 4. 뉴욕시티 Ferry 타기

페리를 여러 차례 갈아탄다. 브롱스-맨하탄-스테튼아일랜드, 그리고 락커웨이 등으로 갈아타며 뉴욕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페리를 타고 넘어와서 브루클린의 덤보를 보는 것도 좋고, 윌리엄스 버그로 가서 맥주 브루어리를 가거나 분위기 좋은 펍에 가거나 혹은 맨하탄까지 한 바퀴 주욱 페리를 타면서 밤 야경 보는 것도 좋은 코스가 될 것이다.



5. 뉴저지에서 2시간 거리의 포코노 부근의 휴양지도 여러 곳 있어 가을에 가면 경치도 좋고 쉬기에 그만이다. 이 중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수양관이 있는데, 가을에 가면 분위기도 좋아 도심에서 떠나 잠시 쉬면서 캠프파이어도 즐기며 현장에서 기르는 닭으로 요리한 백숙을 먹는 즐거움도 있다.



#### 6. Kaaterskill Falls

카어터스킬 폭포는 뉴욕주 동부 Catskill Mountains의 Spruce Creek에 있는 2단계 폭포로 Greene County의 Haines Falls와 Palenville의 작은 마을 사이에 있는 폭포이다. 경치가 아름다워 사진 촬영지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7. 뉴저지와는 좀 거리가 멀지만 롱아일랜드 쪽도 해변을 끼고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다. 그 중에도 몬탁(Montauk)은 경관이 매우 수려한 곳으로 여름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 봄의 소리 (Sound of Spring)

■ 김현미 (박기환 회원부인)

봄! 봄은 어쩐지 가슴 설레이는 계절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어린 새싹들이 세상 밖으로 뺨뺨 얼굴을 내미는 만물의 위대함이야말로 어찌 창조의 계절 봄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세월이 빠르기도 하네. 봄을 수십 번을 맞이하는 되풀이 속에서 때로는 나이도 잊고 옛 생각에 사로잡혀 감사하고 많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시절, 가끔 기타 연주를 즐기시는 아버지 따라 가족 봄 나들이에 예쁜 구두, 고급스럽게 수 놓인 봄 향기 풍기는 핑크 블라우스 입고 즐거워했던 그 시절의 자국들 ..... 자주 동행해 주셨던 고마운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미국생활의 외로움 속에 가슴 깊숙이 내면에서 우리나라의 소리가말로 우리에게 가장 편안함과 위안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봄의 소리라 여겨져 오네요 Our sweetest songs are those of saddest thoughts.

오늘날 나이는 숫자라고 하듯이 우리에게겐 젊은이들과 못지않게 활약을 주는 계절 봄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곧 다가오는 우리 여성회원 피크닉이 있기에 더 한층 기운 나는 봄냄새를 맡껏 마시게 될 그날이 기대됩니다.



## 빨간색과 나이들

■ 홍지복 (간호대70)

여름방학에 바닷가 비치클럽에서 버스보이(식탁 치우는 일을 하는 사람)로 일한다고 큰 아들은 빠진 온 가족이 아이스랜드와 북유럽을 가기로 했는데 다른 때와 달리 모처럼 준비를 미리 한다고 여권을 챙겨서 손가방 하나에 넣어서 옷장에 걸어 두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예전처럼 김밥까지 싸서 챙겨 놓고 여권을 챙기는데 여권이 내 파일박스에서 찾아지지 않았고 머리를 쥐어짜도 그 행방을 찾을 수 없었어요.

가족을 보스턴 공항까지 두 시간을 달려 배웅해주고 다음날 여권을 새로 만들어 뒤따라 갈 수밖에 없었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다시 보스턴으로 가서 9시에 사무가 시작되는 여권발급소에서 선착으로 기다려 여권을 재발급해서 공항에서 밤 9시까지 기다려서 혹시 남는 좌석을 구해야 했어요.

아침부터 먹지 못한 허기를 채우기 위해 식당에 갔는데 여름철이어서 그런지 공항은 더욱 북적거렸고 내 엉덩이 내릴 의자 하나 없어서 두리번대는데 빨간 백팩과 빨간 잠바를 걸친 할아버지가 혼자 식사를 하고 있어 그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 했더니 좋다고 일어나서 의자까지 챙겨주는 예의를 보이던 분에게 담례로 빨간색을 좋아하나 보다고 영혼없이 말을 했는데 “나를 보라. 난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누군가 나를 찾아줘야 하는데 눈에 잘 보이는 옷을 입어야...”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내 나이도 그렇게 비슷하게 먹어가고 있으니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것! 빨간 색 가방. 빨간 옷... 생존의 법칙!

하나 더. I-Watch! Wi Fi와 GPS가 가능한 시계를 차고 삽니다. 손전화기도 줄을 달아 목에 걸고, 자동차 key에도 sensor를 달아 alarm을 걸어 놓았습니다

7학년의 현주소. 적극적으로 산다고 하면 ...?



# TO BE OR NOT TO BE --

## 10 Feet Journey of Life & Death

■ 정도현(공대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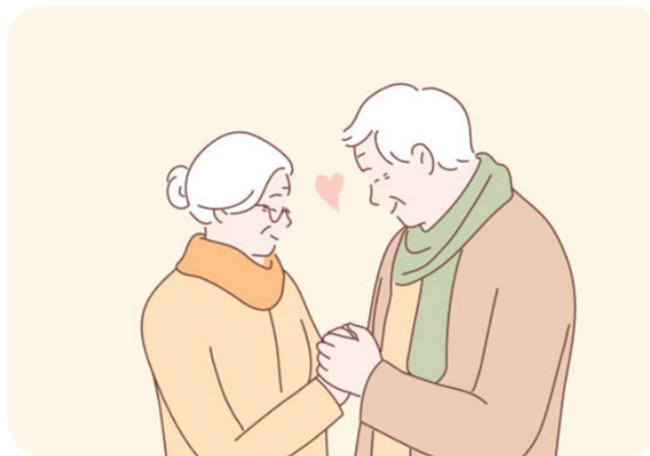
My health has been downhill since I had a COVID-19 in the early Fall of 2020. Among the many long-term symptoms, a severe fatigue compounded with my pre-existing bone marrow disease sapped my physical strength particularly my lower body along with the loss of balance. My daily routines were severely curtailed including occasional golfing. It was also apparent that I keep tripping too many times and becoming a person of a Fall Risk.

Since 2022 I had a half dozen major falls of which the last two were a traumatic life changing experience. Jan.7 this year I was visiting my girlfriend's house. I tripped on the entrance porch step. Because I was carrying something I did not have time to brace the fall and I went headlong straight to the stone wall next to the door. It was as if I am tackling an opponent without helmet and the opponent happens to be a stone wall. I did not get into coma, but I was in the total mess. Pouring blood from the head soaked my face and clothing. I must be looking like a worst villain in a horror movie. My girlfriend took me to Greenwich Hospital Emergency Unit. They gave me nine staples (not stitches) to stop the bleeding. Luckily, I did not get my skull busted. Doctor said I could have died.

Couple of days later, in the 2 am in the night, I went to bathroom to urinate and suddenly I fell again as my left leg buckled. As I laid back on the bathroom floor, I realized I am totally immobile. I even cannot move fingers. I usually sleep naked except under pants. My bathroom tile floor is unusually cold, like an ice surface. I felt I am getting into Hypothermia. I got to get out or die. It took almost an hour but got out bathroom to bedroom without using arms & legs. My daughter was sleeping upstairs but I cannot reach her with my diminished yelling capacity. My only lifeline is my cell phone, but it is ten feet away which seems one thousand miles away as my body is frozen.

At the moment, as I laid back on the bedroom floor, I am facing an existential crisis of life & death. I am having

horrible thoughts of those who, fell on some isolated areas with no life alert devise, ended up dying. I am in same predicament. I have no regret. I think I had a great life, way more than I ever imagined. The way I abused my body with lifelong hard drinking, I deserve my Fate. I wish, somehow, my children and my dear friends could hear me saying " I Love You."



I am in & out of varied state of my consciousness, may be hallucinating. Out of nowhere I am hearing a quotation from the great Yogi Berra. It says, "When you reach the Forks on the Road, Take It." It is a philosophical statement of the duality of life -- Convenience of Easy life vs Harsh Struggle of existence. My head says "Take It Easy" if it is time to

go, let it go. My heart says, "Don't Ever Give Up." As I did most of my lifetime, I followed my heart. "OK, I Hear You."

So began the ten feet Journey toward my cell phone, the Longest & Difficult struggle for the life or death. First 30 min. I see no progress. I am pulling my body with knees & elbows. It was painful & bleeding. I twist my torso like snake. I am making some progress but totally exhausted and thought I passed out. I do not remember what I did, but when I regained my senses, my cell phone was right under my nose. My hand was so shaky, it took quite a while to push to call my daughter upstairs. It was 6:00 AM. It took more than 2 hours for 10 Feet.

Doctors at the emergency ward told me I had elevated level of medical condition called EK (Creatine Kinase) that is the symptom of traumatic fall I had when I hit stone wall and it paralyzed my body muscle functions and if not treated promptly it could be fatal. I am recovering nicely. I promise I will see you all in the coming springtime & will play golf. The ten feet journey I took w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s of my life and I am Very Proud of It.

회원 명단 (114명 / 2023-3-25)

강교숙	김병순	박희병	유무영	임도혁	최철용 최학주 추재욱 한영수 한용오 한태진/ 안용희 허용웅 허유선 홍정표 홍지복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상만	배상규	윤선구	임창우	
강영선	김승호	성기로	윤종숙	임호순	
계동휘	김영덕	손갑수	윤현남	정도현	
고애자	김영만	손경택	이강홍	정수일	
곽상준	김우영	손대홍/ 남종현	이민제	조달훈/ 조승자	
곽선섭	김익성	손옥화	이상무	정해민	
곽승용	김인형	송근숙	이준	조상근	
구달희	김정필	송웅길/ 송현자	이대연	조상선	
권문웅	김종울	김창수	이영범	주재양	
권정덕/ 홍선경	김치갑	송학린	이용대	진봉일	
권영대	김태일	송혜순	이전구	천병수/ 천종화	
권태전	김한중	신진식	이종대	최구진	
금영천	김현중	신응남	이종석	최병우	
김광현	노용면	오순문	이준행	최수용	
김동건	민준기	오용호	이준희	최순채	
김문경	박기환	오유섭	이태호	최준희	
김문연	박상원	오인석	이행순	최진영	
	박준구	우규환	이홍빈		

골든클럽 2023년 행사 일람 (2023-3-25)

1월	22~28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8명 참가)
2월	9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16명 참가)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 KCC Tenafly, NJ
	13일(목)	Hiking
	20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5월	18일(목)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Walkill
	25일(목)	Kaaterskill Fall 방문
6월	8일(목)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15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7월	13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8월	10일(목)	Golf Outing
	19일(토)	뉴욕지역동창회 Picnic
9월	14일(목)	Golf Outing- Pelham Golf Club,NY
10월	12일(목)	동창회 추계골프대회(Sunset Valley)
11월	2일(목)	Golf Outing-Rockleigh Golf Club
12월	2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10일-16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30일(토)	신년교례회 - KCC

2023년 연회비 납부 명단 (38명 / \$3800/ 2023-3-25)

강에드	성기로	주상선
강영선	손경택	천병수
곽승용	손갑수	천종화
권영대	손옥화	최수용
권정덕	신두식	최준희
김광현	신진식	한용오
김문경	오용호	한태진
김창수	이상무	한용희
홍선경	이영범	홍종만
권문웅	이전구	홍예경
금영천	이행순	
김상만	임호순	
김종울	정수일	
박희병	정해민	

2023년 후원금 기부 명단 (19명 / \$9600 /2023-3-25)

강에드 200	손경택 1500	정해민 1000
권정덕 300	신두식 200	최수용 1000
금영천 300	신진식 300	최준희 400
김광현 200	오용호 300	한태진 500
김문경 200	이전구 1000	홍종만 1000
김종울 200	이행순 200	
성기로 500	임호순 300	

2023년 입회비 납부 명단

신두식 200 이영범 200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2023-3-25)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

주소 (Home):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201-965-7759 (Jay Kim)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박상원 (음대69) 홍지복 (간호70)
- 성기로 (약대57)
- 오인석 (법대58)
- 유무영 (공대66)
- 이준희 (음대95)
- 진봉일 (공대50)
- 최철용 (농대57)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Zelle: 201-965-7759 Jay Kim